

# 원하바보들의 대결광대극

윤석열역도가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 라는것을 벌여놓았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과 각종 전쟁장비들을 모아놓고 벌린 이 대결광대극에서 역도는 《북이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조선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있다》. 《남조선미군대통령의 압도적 대용》이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유지》니,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이니 하고 제쳐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는 회세의 저능아, 인간추물의 어

리석고 가스로운 나발질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핵무기는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국가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려야 한다. 《북에 대한 압도적 대용》이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유지》니,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이니 하고 제쳐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핵무기를 절고들며 패권을 돈고있는것은 그들 자신이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이러한자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목소리에 비면청을 합쳐 그 누구의 《위협》과 《비핵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언어도단이며 파멸의 극치이다.

핵은 공화국의 국위이고 국제이며 절대적병기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비핵화》의 개공을 꾸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아말로 대결정신병자들, 천하바보들이다.

더욱 가관은 그 무슨 《압도적대용》에 대해 떠드는 역적패당의 어처구니없는 객기이다.

재세시무기를 가진 중동과 아프리카의 비정규무력에

게시조차 처참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나지 않으면 안된 미국상선을 믿고 열대병기를 가진 초강대국과 맞서보겠다는것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역적패당의 허세성경기에 대해 《압도적대용》? 그 순간 모든것이 끝장난다. 《이놈의 말 가운데서 거짓말이 99%이기때문에 믿을수가 없다. 군대에도 나가지 못한 주재무슨 선제타격이 어찌구... 개가 웃는다.》, 《압도적으로 얻어맞고 말고 좀 내려와라. 압도적으로 말아먹고있는것은 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압도적대용을 한단 말인가. 제일먼저 도망치거나 말아라.》 등으로 야유조소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데 윤석열역도가 귀달린 병어리가 아니라면 그에 대해 심고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역도가 구세주처럼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핵전략자산에 대해 말한다던 그것들은 공화국의 핵무력앞에서 쓰다 버린 파멸터미에 불과하며 역도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그 무슨 《한국형3축타격체계》란 《한국형3축자멸체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건대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이른바 《국군》의 간교필에 미국의 대포박, 총알받이들을 만들어놓은 입에 올리기도 못하는 역스러운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해피하고 낫것은 망발로 세인을 웃긴 윤석열역도의 추태도 나가지 못한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회대의 정치만화이다.

역도가 불쌍사나운 대결광대극으로 구겨질대로 구겨진 체면을 세우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부지하며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처럼 기괴한 망상은 없다.

반공화국대결로 얻을것이란 비참한 종말을 더욱 앞당기는것뿐이다.

하긴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 윤석열역도와 같은 속물, 얼간이가 이에 대해 알겠는지...

알고있다면 애당초 이변과 같은 망발질을 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김정혁

## 자멸을 재촉하는 《3차공조》 책봉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 일본것들과의 《3차공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윤석열역도의 《담대한 구상》은 휴지장이 되어 버렸고 남조선내에서는 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북의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고있는 윤석열, 제발 허튼 망상으로 힘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이다. 지어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전문가들까지도 《핵보유국인 북에 대해 비핵화의 기본단계를 밟는 대가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상기할 필요도 없이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철회하되보다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아둔한 머리를 굴리다 못해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그대로 옮겨버린 《담대한 구상》이라는 얼빠진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남방적이 되어버리고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앞에서 미친듯이 버리던 전쟁대결책동역시 가을날의 락엽처럼 되어 버린데 당황망조한 윤석열역기에 처하였다.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함으로써 그 무슨 《북비핵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윤석열역도의 《담대한 구상》은 휴지장이 되어 버렸고 남조선내에서는 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북의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고있는 윤석열, 제발 허튼 망상으로 힘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이다. 지어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전문가들까지도 《핵보유국인 북에 대해 비핵화의 기본단계를 밟는 대가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상기할 필요도 없이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철회하되보다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아둔한 머리를 굴리다 못해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그대로 옮겨버린 《담대한 구상》이라는 얼빠진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남방적이 되어버리고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앞에서 미친듯이 버리던 전쟁대결책동역시 가을날의 락엽처럼 되어 버린데 당황망조한 윤석열역기에 처하였다.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함으로써 그 무슨 《북비핵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윤석열역도의 《담대한 구상》은 휴지장이 되어 버렸고 남조선내에서는 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북의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고있는 윤석열, 제발 허튼 망상으로 힘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이다. 지어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전문가들까지도 《핵보유국인 북에 대해 비핵화의 기본단계를 밟는 대가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상기할 필요도 없이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철회하되보다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아둔한 머리를 굴리다 못해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그대로 옮겨버린 《담대한 구상》이라는 얼빠진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남방적이 되어버리고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앞에서 미친듯이 버리던 전쟁대결책동역시 가을날의 락엽처럼 되어 버린데 당황망조한 윤석열역기에 처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열려 정치무식쟁이, 추악한 부패범죄자, 우직한 폭군인 윤석열역도를 폭로야유하는 그림들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 《윤석열차》에 비낀 민심

최근 남조선에서 열려 정치무식쟁이, 추악한 부패범죄자, 우직한 폭군인 윤석열역도를 폭로야유하는 그림들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얼마전에 열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전남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제출된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만화에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상한 증기기관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늘한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있다. 특히 만화는 기관사자리를 차지하고 령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면서 호들갑을 떨고있는 역도의 너런네 건진회와 객실마다에 서술푸른 칼을 뽑아들고 앉아 옥육대는 검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한갓 너런네의 조종을 받으며 민심이 역행하고있는 《검찰공화국》이라는것을 신랄히 폭로하고있다. 만화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금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부천에서 진행된 국제만화축전기간 만화박물관에 전시되어 널리 소개

되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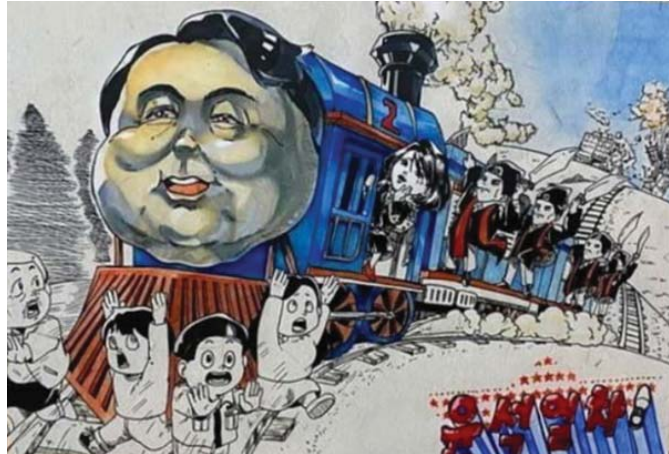
윤석열역적패당의 악정에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담겨진 만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평가하듯이 그림에는 무지무능하고 우둔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역도의 역적행정이 적나라하게 풍자되어있다.

역도가 미신에 빠진 너런네 건진회의 양말질에 《정와대》를 《용와대》로 옮기고 너런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들을 선정하는 폭두각시짓만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운영을 한답이나 한것이란 도란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것이 아니라 칼잡이 검찰총군들을 내몰아 민주개혁세력을 탄압하고 저들 부부의 호화생활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가 하면 동족에 대한 《압도적대용》을 고아대며 침략전쟁연습에 발

광하는것뿐이다.

역도의 행위가 얼마나 중오스러웠으면 남조선인터넷에 《영빈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바꾸어야 한다.》, 《북에 대한 압도적대용이 아니라 건진회에 대한 내용이나 잘해라.》와 같은 비난의 글들이 차고넘치고 고등학교 학생까지 역도를 비웃는 풍자만화를 그리었는가.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에서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철폐파하기도 《정치적주제를 로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느니, 《표절》이니, 《틀리버려라》니, 《엄중히 경고한다.》니 하며 금상을 수여한 관계자들과 만화를 그린 학생을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을 전면파괴로 부추기는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 분노를 담은 나어린 학생의 만화까지 두려워하며 탄압의 칼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또 하나의 회비극을 빚내 세상사람들을 웃기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걸친 역적패당은 이에 대응한다면서 지상대시상관도미씨씨일을 조선동해쪽으로 발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사일이 발사 직후 목표로 정한 곳으로가 아니라 발사장주변에 떨어져 대화제를 일으켰다.

한밤중에 터진 폭음과 화재로 밤새 공포에 시달린 주변지역 사람들이 이 광경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윤석열역적패당은 더욱 궁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력세를

가리워보려고 《침단무기》, 《자주강군》을 떠들며 광기어린 대결폭언을 내뿜던 윤석열역적패당의 허장성세가 다시한번 날날이 드러난셈이다.

이번에 오동작한 지상대시상관도미씨씨일을 놓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침단기술》을 적용한것이라고 요란히 광고하던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자랑하던 《침단미사일》이 제 머리에 떨어져 불바다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가관인가.

그런데도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국군의 날》행사라는데서 이따위 미

씨일을 내놓고 으시대며 체법 주먹을 흔들고 목에 힘을 주었으니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부지깽이보다 못 한 오작병쟁이들을 비껴들고 흰소리를 치는 역적패당을 두고 《올라리안에서 찾아대는 동계》라고 조소하고 있는것은 웅담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완벽한 군사적대용대세》란 바로 이런것이다.

이번 회비극을 놓고 남조선인심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정정대결책동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거기에 제발로 걸어들어가는 자멸정당들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고있다.

김영준

## 《완벽한 대응대세》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대학들에는 《절망적인 윤석열(정부) 이대로 두겠습니까?》, 《모든것을 망친 윤석열의 100일!》과 같은 대형벽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나붙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도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초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투쟁이 매우 정지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투쟁형식과 내용, 방법도 《시국성명》발표, 윤석열규탄기자회견, 윤석열퇴행성토론회, 윤석열과 그의 너런네를 규

탄하는 대형구호게시, 시민조 불투쟁, 윤석열역도의 체포상 황국공언 등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있다.

특히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이제는 윤석열퇴진이나 다름없다.》, 《올해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제2의 초불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웨치면서 반 《정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은 이전 보수 《정권》도 무색케 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로 남조선을 파국의 소용돌이속에 밀어넣고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주고있는 역도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분노의 분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대통령》병거지를 쓰자마자 《공정과 상식》의

간판을 들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자기의 심복들과 너런네의 측근, 친인척들을 등용하고 군사파쇼독재시대를 전면부활시키는데로 나갔으며 친제벌정책, 특권중심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민생을 도탄속에서 몰아넣었다. 특히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았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가고있다.

이런자를 그대로 둔다면 더욱 참담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당하게 된다것이 남조선 각계층이 내린 판단이고 평가이다.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윤석열역도의 퇴진, 탄핵투쟁은 민심이 이미 역도에 대해 파멸을 선고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황금숙

## 대결을 불러 자멸이 온다

《국군의 날》기념식 요란스레 벌려놓고 그 무대에 광대로 나선 윤석열 세상을 또 한번 되게 웃기고싶었던게지 허세로 가득찬 역도의 《기념식》은 역시 천치만인 역을 《길잡이》이로구나 되돌릴수 없는 우리의 핵무력정책의 법화 세상 난 아이도 아는 이 리치 하나 한사코 우겨대는 《북비핵화》타령 역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생주정인지 소불우에 닭알 썩을 굴리만 하느냐 신물나는 망언에 진저리가 나는데

《압도적대용》은 또 무슨 객기나 싶고 불속에 튀어들겠다는 그 《대용》은 네게 호기일지는 몰라도 민심의 대용은 바보에겐 약이 없다 는것

아무리 광대극이라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오죽하면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혀 세간이 비난과 조소 죽가마 굶듯 하겠나 투정없는 항아리같은 그 입을 껌매라 한결같이 저주의 향연을 터치고 있겠나

가는 곳마다 구설에 오르는 역도

스스로 못매벌이를 청하는 저능아 광대극 벌어진 가련한 그 주제에 그 누구의 《위협》과 《자멸》을 론하지 말고 파멸을 눈앞에 둔 제 처지나 한탄 해라

죽을등살등 모르고 설쳐대는 역도의 《기념식》은 추악한 《대결사》아무리 패배를 돌구어 추태를 부려도 그것은 한낱 멸망을 눈앞에 둔 더러운 추물의 단말미일뿐

주절주절 쏟아놓는 망언이 늘어날수록 알아뒤라 네 명만 줄어든다는것을 차라리 너때문에 죽음을 당할 《국군》의 추도사나 준비해두는게 어떨런지 하기가 그것마저 읊조릴 기회 있겠나 장송곡도 없이 졸지에 망해버릴 네 운명인데

## 《혈세먹는 하마》

통령실》을 옮긴 《1주년기념식》에 쓴다면서 36만US\$, 《국민개방홈페이지》를 제작한 28만US\$를 책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실》바닥에 까는 주단을 새로 제작하고 기록물보관을 위한 차량을 빌리는데도 6만여US\$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통산으로 이전한것이 미신에 빠진 너런네의 《조언》때문이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의 막막한 답답한 형세와 지점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으로 청와대에 들어있는 력대 《대통령》들의 운명이 기구할수 밖에 없었다는 소리에 기겁한 역도는 엄청난 혈세를 뿌려대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통산으로 옮겼다.

또한 자기와 너런네가 들어가 살 주택을 재시공하는데만 2 558만US\$를 들이밀었다. 이 것도 모자라 역적패당은 태풍과 큰물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고있는것을 뵈히 보면서도 새 《영빈관》을 지어야 한다며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

계에서 비난이 고조되자 바빠맞는 역도는 속에 없는 사죄놀음을 벌이며 《영빈관》건설계획을 급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을 현대화하면서 또다시 수백만US\$의 자금을 쓰겠다고 철면피하게 늘어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직 일신의 안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역도의 본태를 다시금 푹푹 보여주는것이다.

현실은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자 한다.》느니,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니 하는 윤석열역도의 그 패당의 언동질이 순전히 민생을 유혹하고 인민을 등진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이고 위선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은 혈세먹는 하마》, 《영빈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바꾸어야 한다.》 《김진희의 폭두각시인 윤석열에게는 탄핵이 답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윤석열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인민을 등지고 일신의 부귀와 안락만을 추구하는자들에 대해 차폐질것은 파멸밖에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지금 그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한일혁

## 《퇴진 안하면》 탄핵한다